

테마기획  
2005 WATER KOREA

1

행사스케치

# All That Water! 2005 WATER KOREA를 가다

2005.11.8(화)~11.11(금)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주 회 : 한국수자원학회  
공동주최 : 한국수자원학회





지난 2005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국내·  
 외 물 관련 업체가 한 곳에 모여 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05년으로 4회째를 맞은 WATER KOREA  
 행사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그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가득한 현장  
 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2005 WATER KOREA가 열린 것은 11월 8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일정일 뿐, 행사 전날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그 북적임이 그칠 줄을 몰랐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참가업체에서는 조금이라도 눈에 잘 띄고 멋진 부스를 만들기 위해 한 시도 쉽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상수도협회에는 WATER KOREA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해 언론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식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에 행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다 하고 있었다.

공식 일정은 한국상수도협회의 정기총회로부터 시작됐다. 협회장인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APEC을 코앞에 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총회를 진행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박선숙 환경부 차관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며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역설하였다.

### 전시장의 문이 열린다

이윽고 전시장의 문이 열렸다. 총 140여 개의 참가업체가 각자의 대표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며 한 사람의 시선이라도 더 끌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는데, 그런 열정적인 노력 덕분인지 해외 바이어가 참가업체의 담당자와 즉석에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장 내에서는 단순한 전시에서 벗어나 퀴즈 대회와 퍼팅 경진대회 등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도 WATER KOREA행사의 국제상수도전시회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독특한 풍경이었다.



# 2005 WATER KOREA In Gwangju



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대 광역시에서는 자기 도시의 브랜드를 단 수돗물을 무료로 나눠주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했다. 관람객들은 처음에 생수인줄 알았던 물이 수돗물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수돗물의 맛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며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한편, "왜 우리 고장 수돗물은 없느냐"는 항의 아닌 항의(?)를 해 주위를 즐겁게 하기도 했다. 이제 WATER KOREA가 그저 관(官)과 기업체만의 잔치가 아닌, 지역민 모두가 참여해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광주광역시의 노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 광주시 곳곳에 위치한 상하수도 관련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가 하면,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전시회만으로는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법. 때문에 전시장 밖에서 열린 물 관련 퍼포먼스와 인형극, 물사진 전시회 등은 생활 속의 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전환케 한 소중한 계기였다. 특히 물사진 전시회에는 물과 함께 하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소를 머금게 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이렇게 전시회장이 여러 행사로 북적이는 가운데, 다른 편에서는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와 상하수도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그 주인공.



김대중컨벤션센터 옆 서구 시민공원에서 열린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는 각각 상수도(스테인레스/PVC부문)와 하수도(도/특·광역시) 부문으

로 나뉘어 그동안 같고 닳은 실력을 겨뤘다, 또한 경진대회장 옆에서 열린 도/특·광역시 대항 체육대회(족구대회)도 그 어느 스포츠 관람석보다 열띤 응원이 펼쳐져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손에 땀을 쥐게 했다.

### 학술세미나와 광주광역시 초청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이렇게 ‘불거리’에만 시선이 집중됐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공식 개막과 함께 다양한 연구와 사업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돼 관련 공무원과 학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업무개선사례 발표회에서는 각 지역과 분야의 특성을 활용한 업무개선사례가 연이어 소개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 개막일 저녁에 진행된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에는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맑은 물 보전과 생산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미래의 모델이 될 2005 WATER KOREA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참가자들의 관심과 자발적 노력 덕분에 이번 2005 WATER KOREA는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한 정보의 교환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조금 더 흥미롭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꾸미려는 모습에서 앞으로 더욱 성대하게 치러질 WATER KOREA의 미래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람 나이로 네 살이면 이제 제법 뒤통거리며 뛰어다닐 수 있는 나이다. 뼈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그것을 이어주는 근육도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할 WATER KOREA 역시 앞으로 더욱 크고 단단하게 발전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물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국내 대표 물박람회이자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

